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의 유형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김진희*¹⁾ · 백선아**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The Difference of Growth Environment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Kim, Jin-Hee*¹⁾ · Paik, Sun-Ah**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investigated on that whether there was any statistical difference or not in terms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the growth environ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researcher surveyed 600 questionnaires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was using 539 questionnaires in the final analysis.

They were analyzed by cluster analyses according to the growth environment scale and it classified into two cluster groups. The cluster group A and B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scores of the growth environment scale. The group A had more interested in activities such as political, social, intellectual, and cultural ones and participated at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Moreover, the group was emphasis on moral and religious values.

The group B got the higher score than group A about the score of the rational type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the group A got the higher score than the group B to the score of the dependent type. On the matter of the job information collection sub-scale, the group A got the higher score than the group B: the group A scored higher points than group B about the goal establishment and the self-estimate sub-scales.

Therefore, in order to do the career-guidance of youths, each family had to provide positive growth environment which required various stimuli and affluent in experience settings for them to mature.

Key words: 성장환경(growth environment), 진로 의사결정 유형(career decision making type),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1) 교신저자: Kim, Jin-Hee, Kyungnam University, 7 Kyungnamdaehak-ro,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055-249-2352, Fax: 0505-999-2148, E-mail: witch65@kyungnam.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Career)란 개인이 일생 동안 갖게 되는 경험과 지위의 총체로서 자아실현과 생계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을 목표로 하는 직업만이 아니라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의 여러 가지 활동과 역할이 포함되는 생애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로란 개인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즐거우며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여,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달을 위하여 제공 되어지는 교육적 활동의 일체를 말한다(Lee, 2009).

진로에 대한 관심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비롯한 탐색과 준비는 다른 시기보다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여러 발달단계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개인의 진로발달문제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주목할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Ok, 1993). 또한 청소년기는 학교 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의 시기이다(Lee, 2004).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2월 확정 고시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애 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술·가정의 10학년에는 진로교육 단원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가정 교과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단원을 한 단원에서 두 단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진로교육 요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과 및 단원과 관련된 직업 에피소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적인 직업인의 사례, 진로활동 자료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라는 학력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정체성이나 진로목표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학 진학으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 선택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성과 욕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Namgung, 2010). 특히, 학교교육과 더불어 가족에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역할이 자녀들의 진로의식 발달과 진로탐색 및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족과 관련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Shin, 200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년, 연령, 지능, 흥미, 자아개념,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지각된 또래관계, 중요하게 인식되는 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부모나 본인의 직업기대수준, 사회적 가치와 규범,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 등이 고려될 수 있다(Kim, 2008).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 가정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진로와 관련된 논문들은 대부분이 가정환경에 대한 것보다 다른 변인에 치중되어 있다. 진로관련변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강조하고, 심리적 변인들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와 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Cho, 2006).

Lee(2001)는 진로결정과 선택과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영향을 배제 할 수 없는 한국문화는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자신에 대한 확신감 즉, 진로결정에서 자신감과 독립심,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정환경과 진로결정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녀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요소와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환경과 진로결정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진로지도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서구보다 진로결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문화에서 가정환경의 특성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자녀의 진로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가정환경 변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성장환경을, 진로결정에 관한 변인으로는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변인을 선정하여 성장환경의 특성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성장환경 변인으로 분류한 집단간에 성장환경의 차이는 있는가?
- [연구문제-2] 부모의 교육과 직업에 따라 성장환경의 특성은 다른가?
- [연구문제-3] 고등학생의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4] 성장환경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장환경

가정환경은 인간 교육이 실시되는 최초의 장으로서 기

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가치관 등을 형성하게 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성격 및 행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Yoo, Lee, and Suh(2004)는 가정환경을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 환경, 자녀의 가정이 취한 주거지역, 가옥의 규모 및 가옥 내의 문화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가족과 주거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인 가족문화 환경으로 나누었다(Jung, 2006).

독립·성취 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여가 지향성, 도덕적·종교적 강조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개인의 성장 영역을 통해서는 가족 분위기가 어떠한 발달과정을 강조하는지,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및 독립성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지를 알 수 있다(Shin, 2008). 이 영역은 가족 구성원이 자기주장을 하고 자급자족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도록 권장하는 정도, 학교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성취지향적인 경향 또는 경제심을 띠게 하는 정도, 정치적·사회적·지적·문화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는 정도,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윤리적·도덕적·종교적 문제와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Son, 2006).

우리나라의 가정환경이 서구의 가정환경과 비교하여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독립성을 꼽을 수 있다. 독립성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의존하거나 의사결정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수용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의 영향력이 서구의 청소년들과는 상이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10).

자녀의 진로 발달 및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의 종류, 가계의 수입 정도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주요 지표로 삼기도 한다(Lee, 2002). Seo(2003)은 가정환경변인 중에서 지위환경은 어머니의 학력만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버지

의 학력과 직업은 직업태도, 진로능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Park(200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으며, 학교의 구조적 및 기능적 환경이 좋을수록 진로의견 및 태도, 진로탐색 및 의사결정, 진로준비 행동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2.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이론을 이용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개인이 선택 가능한 여러 직업 중 자신의 투자가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보상이란 지위나 명예, 일하는 보람, 봉사, 욕구충족 등을 말한다(Kim, 2007). 일반적으로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의사결정자의 특성과 각 삶의 단계에서 개인이 당면하게 되는 발달과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다양한 선택 시점에서 결정을 내기 위하여 이용하는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Im, 2008).

Choi(2006)은 진로의사결정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하여 상호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보았다.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정보에서 요구되는 것을 통합하여 관련지을 수 있는 이성적 사고의 행위이며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직관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결정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Choi, 2006).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Mun, 2011), Oh(2002)은 진로의사결정의 하위변인인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Yang(2004)의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고, 직관적 유형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의존적 유형에서는 남녀학생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5)

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여학생이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합리적 유형에,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직관적 유형 또는 의존적 유형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다(Lim, 2006). Lee(2002)의 연구에서는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반면 합리적인 유형에서는 학교 성적이 상인 집단이 중이하의 집단 보다 진로의사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관적인 유형에서는 학교 성적이 중이하인 집단이 중이상인 집단보다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Hackett과 Betz(1981)은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여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 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Lee, 2002). 진로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제와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적은 학생일수록 그러한 과제에 참가하는데 소극적이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Cho, 2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진로의 선택, 진로탐색행동, 진로발달의 개인차 등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며,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 활동이나 진로태도, 직업 흥미 등과 매우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Lee & Cheon, 2004). 개인의

진로결정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부모의 영향과 관련하여 Yang(2003)은 가족이 지지하는 목표와 가족체계의 유지가 진로결정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Kim(2004)도 부모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서적 지지, 언어적 격려, 도구적 격려의 하위요인 별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언어적 격려와 진로 모델링이 영향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조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보다 높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였다. Lee와 Kim(2005)은 부모지지와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지지와 진로발달 변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진로에 관련된 행동 수행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5개의 인문

계 고등학교의 1, 2학년 학생이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보낸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완전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53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52.3%, 남학생 47.7%이고, 학년은 57.9%가 2학년이었다. 성적평균을 살펴보면 60점 이하가 22.8%, 61점~69점 이하가 30.4%, 70~79점 이하가 20.8%, 80점 이상이 25.9%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희망직업은 전문직이 46.5%로 가장 높았고, 기타(29.8%), 관리·사무직(23.7%)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고등학생의 성장환경,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환경은 가정환경의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이외에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성적, 희망 직업을 파악하였다. 최종 질문지 문항과 하위 요인별 신뢰도 값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56	47.7
	Female	281	52.3
School Years	High School First grade	227	42.1
	High School Second grade	312	57.9
School Record	less than 60	103	22.8
	61~69	137	30.4
	70~79	94	20.8
	more than 80	117	25.9
Occupational Desire	Professional	237	46.5
	Clerical worker	121	23.7
	Others	152	29.8

Table 2. Composition of Scale & Reliability

Scale	Sub Scale	Item	Reliability (Alpha)
Growth Environment	Independence-Achievement Orientation	4	.705
	Intelligent-culture Orientation	6	.647
	Activity-Leisure Orientation	7	.635
	Moral-religious Orientation	5	.830
	Total	22	.747
Career Decision Making Type	Rational Type	10	.804
	intuitive Type	10	.675
	Dependent Type	10	.801
	Total	30	.794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Job Information Collection	5	.667
	Goal Establishment	5	.776
	Plan Establishment	5	.779
	Problem Solution	5	.752
	Self Estimate	5	.752
	Total	25	.923

1) 성장환경 척도

성장환경 척도는 Choi(2004)가 Moos와 Moos(1986)가 개발한 가정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FES)를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 개인성장 영역에 해당하는 35 문항으로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설명력과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2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장환경은 독립-성취지향, 지적-문화적 지향, 활동-여가 지향, 도덕-종교적 지향의 하위척도로 명명하였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해석 하였다.

독립-성취지향은 가족 구성원의 학업 및 일에 대한 성취추구 및 경쟁 정도를 나타내고, 지적-문화적 지향은 가족 구성원의 정치, 문화, 지적 활동의 참여를 말한다. 활동-여가 지향은 가족 단위의 사회적 활동 및 여가 생활의 참여 정도를 뜻하고, 도덕-종교적 지향은 가족 내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의 강조 및 공유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Son, 2006).

2) 진로의사결정 유형 척도

진로의사결정 유형 척도는 Lee(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Herren의 진로의사결정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번역한 것이다.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인 유형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 하였다. 합리적 유형은 자아와 상황에 대한 정보의 실제적이고 논리적이며 신중한 평가에 의한 진로 결정의 정도를 측정하고, 직관적 유형은 즉흥적인 느낌과 직관을 이용한 자아 인식에 의한 진로 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존적 유형은 진로 결정에 대한 책임감 능력이나 적극성이 결여된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진로 결정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Kim, 2008).

3)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측정은 Lee(2001)가 CDMS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Taylor & Betz, 1983)을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 요인 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요인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각 하위요인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직업정보수집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목표설정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계획수립은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문제해결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헤쳐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며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Kim, 2012).

3. 분석방법

- 1) 조사대상자를 성장환경 점수에 따라 군집화 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성장환경 변수에 의해 나누어진 두 집단간에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 분석)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Reliability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성장환경 변수에 의해 나누어진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s)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성장환경 변수에 따른 집단 구분

고등학생이 평가한 성장환경을 측정하는 22개 문항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총 539개의 사례 중에서 군집 A에 226명, 군집 B에 289명이 분류되었고 24개의 사례는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았다. 군집을 독립변수로 성장환경 점수를 종속변수로 군집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n the Growth Environment Difference of Cluster

Factor	cluster		t
	A(n=226)	B(n=289)	
	M(SD)	M(SD)	
Independence-Achievement Orientation	2.84(.565)	2.76(.804)	1.155
Intelligent-culture Orientation	3.00(.511)	2.50(.680)	9.342***
Activity-Leisure Orientation	3.15(.429)	2.92(.651)	4.686***
Moral-religious Orientation	3.05(.691)	1.66(.600)	24.503***

***p<.001

군집 A(A-group)와 군집 B(B-group)는 독립-성취 지향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의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군집 A가 군집 B보다 세 개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고, 각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도덕-종교지향 요인에서 1.3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적-문화 지향 요인은 0.5, 활동-여가지향 요인에서는 0.23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군집 A의 가정환경은 군집 B의 가정환경보다 가족들이 정치·사회적·지적·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족의 분위기가 윤리적·도덕적·종교적 문제와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 A가 군집 B보다 자녀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성장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부모의 특성에 따른 성장환경 집단의 차이

성장환경으로 분류한 A-group과 B-group에 속한 사례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4>,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이 B-group 속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녀의 성장환경에서 지적-문화적 활동을 지향하고, 활동-여가를 많이 즐기며 도덕-종교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인 경우 A-group에 속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생산·기술직은 B-Group에 속하는 사례가 많다. 어머니의 직업에서도 전문·사무직인 경우 A-group에 속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생산·기술직과 기타는 B-Group에 속

Table 4. Analysis on the Cluster Difference of Par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A Group	B Group
		N(%)	N(%)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95(37.8)	156(62.2)
	College	118(47.8)	129(52.2)
	Total	213(42.8)	285(57.2)
χ^2		5.010*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114(36.3)	200(63.7)
	College	97(53.6)	84(46.4)
	Total	211(42.6)	284(57.4)
χ^2		14.027***	
Father Occupation	Professional / Office Worker	91(50.8)	88(49.2)
	Manufacture / Skill	52(36.1)	92(63.9)
	Small Business	46(41.8)	64(58.2)
	Others	26(42.6)	35(57.4)
	Total	215(43.5)	279(56.5)
χ^2		7.265*	
Mother Occupation	Housewife	92(50.5)	90(49.5)
	Professional / Office Worker	58(48.7)	61(51.3)
	Manufacture / Sales	26(22.9)	61(70.1)
	Others	42(38.5)	67(61.5)
	Total	218(43.9)	279(56.1)
χ^2		12.615**	

*p<.05 **p<.01 ***p<.001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교육과 직업에 따라 성장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성장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3. 고등학생의 특성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차이

고등학생의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없는 반면,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는 직관적 유형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이 학년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다. 2학년 집단이 진로의사결정의 직관적 유형 점수가 낮고

($t=2.164, p<.05$), 1학년이 진로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성별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점수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여학생이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에서 점수가 높다는 Kim(2005)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의존적 유형에서는 남녀학생 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Yang, 2002)와 일치한다. 학년이 낮은 집단에서 직관적 유형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의 점수가 높다는 Kim(2005)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낮은 집단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적 평가대신 자신을 인식하고 상상을 이용하는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 입시준비에 집중하면서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목표 설정, 계획 세우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진로의사결정 자

Table 5. Analysis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Differ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ational Type	Intuitive Type	Dependent Type	Job Information Collection	Goal Establishment	Plan Establishment	Problem Solution	Self Estimate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3.299 (.494)	3.124 (.514)	2.918 (.406)	3.128 (.601)	3.305 (.722)	3.193 (.580)	3.262 (.553)	3.345 (.582)
	Female	3.330 (.570)	3.126 (.519)	2.942 (.355)	3.124 (.595)	3.302 (.765)	3.097 (.624)	3.294 (.523)	3.366 (.563)
t-값		-658	-.074	-.524	.082	.046	1.83	-.679	-.419
School Years	1 st grade	3.404 (.446)	3.197 (.457)	2.903 (.354)	3.253 (.606)	3.497 (.683)	3.297 (.695)	3.384 (.519)	3.461 (.620)
	Second grade	3.294 (.553)	3.107 (.532)	2.936 (.386)	3.096 (.592)	3.260 (.754)	3.109 (.599)	3.253	3.331 (.559)
t-값		1.857	2.164*	-.583	2.386*	2.907**	2.836**	2.210*	2.074*
School Record	less than 60	3.195 ^d (.524)	3.141 (.434)	2.973 (.493)	3.094 (.590)	3.307 (.681)	3.130 (.521)	3.258 (.543)	3.347 (.524)
	61~69	3.291 (.551)	3.143 (.369)	2.917 (.543)	3.133 (.618)	3.271 (.765)	3.155 (.598)	3.188 ^d (.527)	3.288 (.568)
	70~79	3.364 (.513)	3.106 (.320)	2.961 (.462)	3.168 (.568)	3.314 (.785)	3.204 (.689)	3.309 (.536)	3.391 (.608)
	more than 80	3.329 ^a (.549)	3.123 (.397)	2.868 (.563)	3.203 (.583)	3.334 (.764)	3.207 (.588)	3.443 ^b (.570)	3.467 (.572)
F-값		4.992**	.083	.648	.602	.150	.450	4.711**	1.867

*p<.05 **p<.01

기효능감이 저학년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적 유형 점수는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집단이 60점 이하의 집단보다 높고(F=4.992, p<.01), 진로의사결정의 문제해결 자기효능감 점수는 성적이 61~69점 집단이 80점 이상의 집단보다 낮다(F=4.711, p<.01).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합리적 유형의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Lim, 2006; Lee, 2004)와 일치한다.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생각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4. 성장환경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차이

성장환경에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

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성장환경 변인에 의해 분류된 두 집단을 독립 변수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 합리적 유형의 점수는 A-group보다 B-group이 높고(t=-2.431, p<.01), 의존적 유형 점수는 A-group이 B-group보다 높다(t=2.192, p<.05). 이러한 결과는 성장 환경의 특성이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A-group이 합리적 유형 점수는 낮고, 의존적 유형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 결과(Ahn, 2005; Choi, 2003; Lee, 2002)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문화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과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지며 도덕적·종교적 문제와 가치를 강조하는 A-group의 자녀가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에서 계획수립과 문제해결 요인 점수는 차이가 없는 반면 나머지 하위 요인에서

Table 6. Analysis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Difference of Growth Environment

Factor	Variable	A group	B group	t
		M(SD)	M(S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Rational Type	3.254 (.470)	3.370 (.572)	-2.431**
	Intuitive Type	3.129 (.371)	3.123 (.389)	.183
	Dependent Type	2.984 (.450)	2.881 (.567)	2.192*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Job Information Collection	3.194 (.545)	3.093 (.632)	1.886*
	Goal Establishment	3.254 (.651)	3.379 (.805)	-1.889*
	Plan Establishment	3.194 (.534)	3.117 (.654)	1.422
	Problem Solution	3.289 (.552)	3.293 (.522)	-.241
	Self Estimate	3.284 (.498)	3.420 (.618)	-2.563*

*p<.05 **p<.01

는 성장환경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다. 직업정보수집은 A-group이 B-group보다 점수가 높고($t=1.886, p<.05$), 목표 설정($t=-1.889, p<.05$)과 자기평가($t=-2.563, p<.05$) 요인에서는 A-group보다 B-group의 점수가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A-group과 B-group의 가정환경 특성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방향은 다양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고, 생산·기술직의 비율이 높은 B-group의 경우 자녀들이 진로결정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A-group은 자녀들 스스로 정보 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A-group이 정치적·사회적·지적·문화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은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최근 사회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교육과정에서도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진로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나 활동보다는 교육적 성취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특성을 밝히고,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환경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군집에 따라 성장환경 하위 요인 점수에 차이가 있다. A-group이 B-group보다 지적·문화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활동과 여가에 많이 참여하며, 도덕과 종교적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A-group에 속한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독립과 성취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교육과 직업에 따라 발달과정에서 강조하는 가족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적절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학년 집단이 1학년 집단보다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 학교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점수와 문제해결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라 그리고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진로 의사결정을 하고, 성적이 좋을수록 진로 의사결정 하위 요인 모두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특정 학년에 한정하여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전 연령 단계마다 순차적인 연속적 과정으로 진행하여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A-group은 B-group보다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점수와 자기효능감의 목표설정과 자기평가 점수는 낮은 반면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점수와 직업정보수집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다. 성장환경의 특성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점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사무직이 많은 A-group에서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목표설정 및 자기평가 점수가 낮은 결과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활동의 정도나 강조하는 가치관의 강도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성장환경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며 독립성과 개인적 선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가정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촉하게 되는 환경중에서 초기 환경이며 최초의 사회생활의 장으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곳이다. 또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익혀 성숙된 자아를 형성하고 만족스러운 진로에 대한 설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특성에 따라 가정환경의 분위기가 다르게 구성되고, 이에 따라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진로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환경 제공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단계별 통합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녀의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K.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Chuncheon, Korea.
- Cho, A. M. (2000).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s a predictor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8(4), 43-62.
- Cho, K. A. (2006).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Choi, O. S.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individual trait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on the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 K. (2006).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on the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n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geu, Korea.
- Choi, S. K. (2003). *The effect of parents' attitude of bring up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elf-esteem on the decision of their way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geu, Korea.
- Im, N. G.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to career decision making high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 Jung, O. K. (2006) *The influence of family-environment upon psycho-social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A.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and their career-making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ocheon, Korea.
- Kim, J. E.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reer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R.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2012). *The effect of career-decision-making type, self-efficacy in career-decision-making, self-esteem, and anxiety on school maladjustments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Asan, Korea.
- Lee, C. J. (2002). *The effect of self-concept, home background and mother; fostering attitude of vocational high*

- school students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geu Catholic University, Dageu, Korea.
- Lee, E. K. (200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F. R. & Cheon, M. S. (2004).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levels on decision-making abil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6(2), 1-34.
- Lee, H.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R. & Son, J. H. & Kim, S. J. & Kim, S. M. (2008).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6(1), 46-62.
- Lee, K. J. & Kim, S. O.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14.
- Lee, M. S. (2002). *Analyse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Lee, O. S. (200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Y. (2009).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Y. (2011). *The effect of family-environ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home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O.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nse of self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Mun, C. Y. (2011).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kil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Namgung, H.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career maturity & career Indeter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Ok, K. H. (1993). Influence of family and work experience on occupational aspirations of adolescents: a path model.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14(2), 149-168.
- Park, M. J. (2004). *A study on environmental variables related the career maturity of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Seo, K. A. (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home environment on career maturity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S. S. (2008).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differences amo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Son,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background, perceived self efficacy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fter gradu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H. S. (2004). *The effects of decision making type and decision making times of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decision fa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Korea.

Yoo, A. J & Lee, J. S. & Suh, J. H. (2004). Relation of adolescent'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3), 161-180.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53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여 성장환경 변인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군집 A와 B는 성장환경에서 독립-성취 지향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장환경의 특성이 서로 다른 집단을 입증하였다. A group는 B group보다 정치적·사회적·지적·문화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윤리적·도덕적·종교적 문제와 가치를 강조한다.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적 유형 점수는 A group보다 B group이 높고, 의존적 유형 점수는 A group이 B group보다 높다. 직업정보수집은 A group이 B group보다 점수가 높고, 목표설정과 자기평가 요인에서는 B group이 A group보다 점수가 높다. 성장환경의 특성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점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극과 풍부한 경험이 제공되는 성장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01월 28일